제48차 INTERSTENO 총회 참가 보고

국제부

총무이사 김덕진 감수

Ⅰ. 들어가며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새삼스러운 말이겠지만 파리에는 특유의 고혹적인 색감과 스타일이 있다. 길을 걷는 파리지엔의 차림새를 보면 크게 튀지는 않지만 왠지 현대적인 고상함이 묻어나는 가운데 깜찍하고 발랄한 파격의 양념으로 마무리한 듯한 패션 센스는 절로 곁눈질을 하게 만든다. 이는 까다롭고 도도하게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파리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뿐인가. 그냥 '블랙'이라 칭하기엔 저마다 묘하게 다른 색조를 뿜어내는 갖가지 검은색의 파노라마. 잿빛 하늘을 닮은 청회색, 강아지풀을 연상케 하는 흐린 녹색 등 은은하고 차분하면서도 은근히 매혹적인 색상의 믹스 앤 매치'는 그야말로 발군의 조합이다.

이 도시가 지닌 우아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는 예술과 패션, 디자인과의 찰떡궁합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곳에서 인터스테노 총회라니. 조금 생뚱맞기도 하지만 항상 여행객을 설레게 만드는 파리에서의 총회를 다녀오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지난해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파리 남서쪽과 북동쪽에 위치한 피아프, 시떼U, 파리시청 홀에서 일주일 동안 열린 「인터스테노 총회 2011」를 회원들께 보고 드린다.

Ⅱ. 인터스테노 총회 참가 개요

1. 참가 목적

○ 기록문화와 속기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발전방안 강구

○ 각국 의회의 속기 방식 및 회의록 발간 정보교류 및 현안 사항 논의

○ 우리나라의 속기 및 속기사 양성 체계의 홍보를 통한 국제적 위상 증대

○ 선진 주요국의 의회 속기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교류

○ 속기경기대회를 통한 속기술의 향상과 비교를 통한 속기기계의 발전

2. 총회 장소 : 프랑스 파리 FIAP 및 Cité U

3. 참가 기간 : 2011년 7월 9일(토) ~ 2011년 7월 17일(일) <7박9일>

4. 참가단 구성

○ 단 장 : 이경식(협외 이사장)

○ 대 표 : 손석련(협회 감사)
김점동(협회 이사)
김덕진(협회 총무이사)
간찬기(협회 사업이사)

정란(협회 자격심사 · 연구위원장)

조미경(협회 회원)

○ 속기경기대회 출전자

김봉철(한국스테노)

이한나(한국스테노)

김진호(한국스테노)

김밀알(국회사무처)

5. 참가국 및 참가 인원

37개국 600여 명 참가(참가국가명 : 알파벳순)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카메룬, 칠레, 중국, 체코, 독일, 알제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가나, 적도기니, 온두라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 탄자니아, 영국, 미국, 한국)

6. 주요 일정

날 짜	시 간	일 정	장 소
7/9(토)	09:00-19:00	Registration(등록)	FIAP Hall
	09:00-19:00	World championship in Multilingual Shorthand(다국어 속기 월드 챔피언십)	FIAP Competition rooms
	09:00-12:00	Jury meeting(심판원 회의)	FIAP
	14:00-17:00	Board meeting(운영진 회의)	FIAP
7/10(일)	08:30	Council meeting(위원회) - first session	FIAP Lisbonne
	09:00-19:00	Registration(등록)	Citè U Hall
	10:00-13:00	Installation of exhibitors(전시회 설치)	Citè U Hall
	14:00-19:00	Exhibition(전시회)	Citè U Hall
	14:00-16:00	Official opening(공식 오픈)	Citè U Amphi. Adenauer
	16:00-17:30	Welcome drink(환영회)	Citè U Amphi. Adenauer
	17:30-18:15	Instructions for PC competitors (PC 경연자를 위한 안내)	Citè U Amphi. Adenauer /Salon Honnorat
	18:15-19:00	Instructions for speech capturing competitors(스피치 캡처 경연자를 위한 안내)	Citè U Amphi. Adenauer
7/11(월)	08:00-09:00	Typewriting Training	Citè U Salon Honnorat
	09:00-11:00	Text Production competition (텍스트 프러덕션 대회)	Citè U Salon Honnorat
	11:00-12:00	Text Correction competition (텍스트 코렉션 대회)	Citè U Salon Honnorat
	09:00-12:00	IPRS 1st Meeting(첫 번째 IPRS 회의)	FIAP Lisbonne
	13:30-16:00	World championship in professional word processing(전문워드프로세싱 대회)	Citè U Salon Honnorat
	09:00-19:00	Exhibitions(전시회)	Citè U Hall
	18:00-20:00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Correspondence and summary reporting (서신 및 요약보고 경연대회)	FIAP Competition rooms
7/12(화)	09:00-19:00	Exhibitions(전시회)	FIAP Bruxelles Hall
	09:00-12:00	Speech capturing world championship(스피치캡처 경연대회)	FIAP Competition rooms
	12:00-13:00	Realtime world championship(리얼타임 경연대회)	FIAP Competition rooms

7/13(수)	09:00-19:00	Conferences(컨퍼런스)	FIAP Amphi. Bruxelles
	09:00-19:00	Exhibitions(전시회)	FIAP Hall
7/14(목)	09:00-13:30	Youth day: Da Vinci code race(유스데이)	Outdoor(Through Paris)
	13:30-15:00	Youth day: Lunch "Da Vinci"(유스데이)	Outdoor(Esplanade des Invalides)
	09:30-12:30	IPRS 2nd Meeting(두 번째 IPRS 회의)	FIAP Bruxelles Hall
7/15(금)	08:30	Council Meeting(위원회) - second session	FIAP Lisbonne
	11:00-12:30	General assembly(총회)	FIAP Bruxelles Hall
	12:30	Council meeting(위원회) - short final session	FIAP Lisbonne
	16:30-19:30	Price giving ceremony(시상식)	Town Hall Paris 4e
	20:00-23:00	Farewell gala dinner(환송만찬)	Town Hall Paris 4e

Ⅲ. INTERSTENO 총회 주요 내용

□ 공식 오프닝 행사 (2011년 7월 10일 Citè U Hall)

총회의 시작은 흥겨운 분위기였으며 편안한 복장으로 서로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꾸며졌다. 각국 회원들은 서로 인사하며 여행의 피로를 풀고 마음을 활짝 열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의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의 공식 대변인 조미경 회원의 입과 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고, 모두가 각자 각국 대표들과 명함을 나누고 함께 찍은 사진 속의 미소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는 화기애애한 자리였다.

○ 제48차 인터스테노 총회는 2011년 7월 9일~7월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37개국에서 600여 명의 속기사 및 관계자들이 참가함.

○ 오프닝 행사 시 프랑스 전통춤 등으로 흥을 돋운 가운데 각국의 대표들이 자국의 국기를 들고 나와 자국 언어와 영어로 인사말을 함.

○ 우리나라에서는 이경식 이사장이 한국을 대표하여 태극기를 들고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음.

□ Council meeting (각국 대표단 회의)

둘째 날부터는 진지한 분위기로 우선 아침 일찍부터 각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Council 미팅이 FIAP 회의실 Lisbonne 홀에서 개최되었다. 일종의 운영위원회 성격으로 총회 및 제반 행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아갈 것인지 인터스테노의 핵심 의제들을 다루었다.

1. 1차 회의(Council meeting : first session) - 7월 10일 일요일 08시 30분

○ 부회장 Jaroslav Zaviacic 주재 하에 개의 및 회장 Gian Paolo Trivulzio 환영사 대독. (건강상의 사유로 회장 불참)

○ 부다페스트에서 2010년 10월 2일 개최됐던 IPRS 보고.

→웹사이트 구축 제안 & IPRS 회원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논의.

○ 주제발표1 - 중국의 속기교육(발제자 : Tang Keliang)

○ 주제발표2 - 인터스테노 주최 속기 경기대회의 역사(발제자 : Boris Neubauer)

2. 2차 회의 (Council meeting: second session) - 7월 15일 금요일 08시 30분

○ 총회에서 선출될 집행부 중에서 현재 1명인 부회장을 2명으로 선출하기 위한 정관(Constitution) 개정

○ Council 멤버 소개

○ 경기대회 종목 논의

○ 총회에서의 집행부 선거 방식 논의

○ 향후 2년간의 임기를 가진 신임 집행부 지명

○ 2013년 벨기에 겐트(Gent)에서 개최될 제49회 인터스테노 총회에 관한 개요 보고 및 겐트시 소개(발표자 : Danny Devriendt)

□ 국제속기경기대회 (2011년 7월 11일~7월12일)

드디어 지난 베이징대회에서 무관의 설움을 만회하고자 절치부심했던 속기경기대회일이 되었다. 우리에게 배정된 방에 도착하자 파리 도착 첫날 필승을 다짐하며 폭탄주를 호탕하게 원샷 하던 선수들의 얼굴에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감독관들은 여성으로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진을 찍는 우리들이 입안이 마를 정도였다. 김점동 이사가 계속 농담을 던지며 '릴렉스!'를 외쳤지만 우리 대표들은 눈동자마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부동의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다.

파리 인터스테노 국제속기경기대회에는 총 7종목의 경기대회가 열림. 경기대회 참가자는 총 327명으로 이들은 한 종목 또는 그 이상의 경기대회에 참가함. 각 종목별 경기대회 참가인원은 다음과 같음.

○ 텍스트 프로덕션 경기 : 228명 참가

○ 텍스트 수정 : 178명 참가

○ 전문 워드 프로세싱 : 114명 참가

○ 스피치 캡처링 : 192명 참가

○ 리얼타임 경기 : 101명 참가

○ 회의록 작성(the correspondence and minute-taking) : 84명 참가

○ 다국어 경기 (subscriptions to the multilanguage contest) : 35명 참가

특히 한국은 리얼타임 종목에 4인이 참가하여 김봉철 2위, 이한나 6위, 김진호 10위, 김밀알 11위 등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함.

□ Intersteno IPRS meetings

하원 의회에 들어가면서 철저한 검문과정을 거치는 것은 우리 국회의사당 면회

실 이상이었다. 복잡한 과정을 통과해 들어간 프랑스 하원 의사당은 박물관과 예술관을 합쳐 놓은 듯이 아름답고 웅장했다. 특히 본회의장은 마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에 온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날 정도였고 섬세한 조각과 그림들로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모든 방을 지날 때마다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바빴다.

이어서 가진 대회의실에서의 IPRS 미팅은 가장 진지하고 학술적인 자리였다. 시각장애인의 기록방식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네덜란드의회의 기술적인 발전은 세세한 그림과 함께 아주 인상적으로 발표되었다.

두 번째 미팅에서는 일본의 음성인식 번문시스템에 이어서 우리나라는 「한국 속기계의 현황 및 회의록 발간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1. 의회속기사부(IPRS) 첫 번째 미팅 - 2011년 7월 11일 월요일 09:00

▲ 프랑스 하원의회 참관

○ IPRS 첫 번째 미팅은 프랑스 하원의회 참관으로 시작됨.

○ 각국 의회 속기사 등 90여 명이 참석.

○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프랑스 하원의회의 본회의장 및 의회도서실 등 둘러봄.

○ 프랑스 의회 기록업무 담당하는 안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함.

○ 현재 프랑스 하원의회의 기록업무는 각 9명씩 3그룹으로 구성된 기록담당자 총 27명이 기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본회의의 경우 1인 15분씩 기록함.

▲ 주제발표

프랑스의회 참관 후 의회 내 대회의실에서 주제발표가 이어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의 직업으로서 의회 속기사(발제자 : Mrs Jenny Laval)

○ 네덜란드 의회 기록담당부서의 기술적인 발전(발제자 : Mr Matthijs Bakker, Mr Herbert Houdijk)

○ 독일의 시각장애인 직업으로서의 속기사(발제자 : Mr Gert Sandig)

2. 의회속기사부 (IPRS) 두 번째 미팅 - 2011년 7월 14일 목요일 09:30

IPRS 두 번째 미팅은 파리 시내 FIAP의 강당 Bruxelles 홀에서 있었음. 주제와 발제자는 다음과 같음.

○ 일본의 자동기록 시스템(발제자 : Mr Tutsuya Kawahara)

- 일본의회의 음성인식을 통한 새로운 번문시스템의 전개 및 진화 & 입법과정에서 회의록과 그 가치.

○ 이탈리아의 의사록과 요약본(발제자 : Mr Fabrizio Verruso)

○ 폴란드 의회 기록과(발제자 : Mrs Anna Namys)

○ IPRS의 현황과 미래(발제자 : Mrs Lida Horlings)

○ 한국 의회의 특징과 국회 의정기록과 업무현황(발제자 : 조미경)

→총회에 참석했던 조미경 회원이 IPRS 미팅에서 한국 의회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음.

□ Conference (2011년 7월 13일)

총회 참가 준비가 늦은 관계로 우리는 발표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아쉬웠다. 그래도 각국의 여러 가지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술 발전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고 다양한 관심사를 서로 공유하는 장이 되어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린 컨퍼런스에서 총 10명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함.

○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문제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룸.

<컨퍼런스에서 리얼타임을 제공하는 모습>

○ 또한 독일의 속기교육방식 및 브라질의 온라인을 통한 속기교육방식이 발표됨. 이를 통해 속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전시회 (2011년 7월 10일 ~ 7월 13일)

미국 프랑스 한국 등의 속기 기계 및 속기 프로그램 장비가 출품되어 세계 각국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 기계 중앙부의 모니터가 점차 확장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현재 개발 중인 신기종이 아닌, 한국스테노의 CAS PLUSIII를 전시하여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 Cite U 홀과 FIAP 홀 두 장소에서 4일간 속기기계 전시회 개최.

○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프랑스, 미국 등 12개 업체에서 다양한 모양과 색상, 기능을 갖춘 첨단 속기기계가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속기기계에 관심을 보임.

○ 음성인식장치 및 시스템도 전시되었으나 기초적인 수준이고 실제 활용하기에는 많은 발전이 요구됨.

□ 총회 (2011년 7월 13일)

총회에서는 이탈리아의 Fausto가 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였고, 다음 총회는 2년 후인 2013년 벨기에 겐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회장 Gian Paolo Trivulzio의 화상메시지 전달 및 회원들과 화상통화 → 모두 건강을 기원하며 기립박수.

○ 비밀투표에 의해 새 집행부 선출. 선출된 신임 집행부는 향후 2년 간 활동하게 되며 신임 집행부는 다음과 같음.

▶ 회장 : Dr. Fausto Ramondelli

▶ 부회장 1 : Jaroslav Zaviacic

▶ 부회장 2 : Mark Golden

▶ 사무처장(Secretary-Treasurer) : Danny Devriendt

▶ IPRS 코디네이터 : Rian Schwarz-van Poppel

○ 2013년 제49차 인터스테노 총회 장소 승인 : 사무처장 Danny Devriendt 씨가 벨기에 겐트(Gent)시를 소개함.

○ Intersteno 예산 사용내역 보고 및 제49차 벨기에 겐트 총회 참가비 결정.

○ 정회원 가입 승인 : 영국 캐나다 스페인 미국 등

<2013년 총회 개최지인 벨기에 겐트시 소개>

□ 시상식 및 만찬 행사 (2011년 7월 15일)

지루하리만큼 수많은 부문의 시상이 이어지고 거의 동구권 국가의 독무대이다시피 한 환호성이 익숙해질 무렵 마침내 속기 월드 챔피언십의 하이라이트인 리얼타임경기 부문의 시상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입상자 명단에 호명될 때 세레모니를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하고 연호에 이어서 박수하는 걸로 맞춰놓았다.

그러나 막상 한국의 김봉철 회원이 2위에 호명되자 우리 모두 허를 찔린 듯 크게 환호하지 못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중국의 무결점속기사 왕루이가 3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상은 물 건너 간 줄 알고 허탈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었다. 시상대에 서야할 1위 미국 대표도 일찌감치 자리를 뜬 상태였다.

이는 지난 47회 북경 대회에 같은 종목에 처음 참가한 후 두 번째 도전 만에 우리나라 속기인으로는 처음으로 이룬 쾌거이다. 총 35개국이 참가한 리얼타임 종목에서 한국은 4인이 참가하여 이한나 회원(한국스테노) 6위, 김진호 회원(한국스테노) 10위, 김밀알 회원(국회사무처) 1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시상을 모두 마친 저녁시간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운 파리 시청홀에서 어느 영화제 못지않은 화려한 드레스로 성장한 유럽의 선남선녀들과의 만찬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되었다. 비록 드레스코드를 잘못 이해해 평상복으로 갔지만 넉살좋게 앉아 꿋꿋한 자세로 스테이크를 자르는 행복한 밤이었다.

○ 시상식 및 고별만찬은 약 60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시청홀에서 개최됨.

○ 세계속기경기대회의 각 부문별 시니어부 수상자는 다음과 같음.

▶ 텍스트 프로덕션 (시니어부 일반 키보드) 1위 : Hakan Kurt (터키)

▶ 텍스트 수정 (시니어부) 1위: Petra Vintrlikova (체코)

▶ 전문 워드 프로세싱 (시니어부): - (체코)

▶ 스피치 캡처링 (시니어부) 1위: 그래픽 부문 Zsuzsa Ferenc (헝가리), 키보드 부분 - (체코)

▶ 리얼타임 경기 (시니어부) 1위: Laura Brewer (미국) *한국은 2위 김봉철

▶ 회의록작성(the correspondence and minute-taking) 1위: Sylvia Beckers (독일)

▶ 다국어 경기 (subscriptions to the multilanguage contest) 1위: Boris Neubauer (독일)

VI. 성 과

□ IPRS 미팅에서 우리나라 의회와 의회 기록 담당 부서의 업무 현황을 소개, 발표함으로써 한국은 의회가 생긴 이후의 모든 기록을 갖고 있고, 이를 중시하는 기록문화를 갖고 있음을 각국 의회 담당자에게 주지시킴.

□ IPRS 미팅에서는 특히 유럽 의회와 달리 많은 속기사가 일하는 한국 의회의 특수성과 업무 집중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도모함.

□ 네덜란드 의회는 기록담당부서의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일본 의회에서는 기초적 음성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제적으로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보다 용이한 기록수단을 지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확인함.

□ 기록업무를 통해 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실제 사례를 수집함.

□ 국제속기경기대회에 두 번째 참가 만에 2위에 입상하여 우리의 리얼타임 부문 속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우리 속기 기록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

V. 개선 및 건의사항

□ 차차기의 인터스테노 총회(2015년) 한국 유치를 위한 재원 마련과 철저한 행사 준비가 필요함.

□ 세계적 추세인 기록의 테크놀로지화를 위한 확고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의 실현을 위한 치밀하고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함.

□ 대표단 구성을 조기에 완료하여 사전에 총회 참가를 위한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행사 시작 이전에 현지에 도착하여 첫날 행사부터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총회 분위기 적응에 완벽을 기해야 함.

□ 이사장은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각국과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국제부는 IPRS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각국 의회 기록관계자와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등 교류 활성화가 요구됨.

□ 2013년 벨기에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발전된 기록업무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할 것임.

□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각국의 최신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을 보다 활발히 해야 함.

VI. 마치며

작년 파리에서의 인터스테노 총회 기간 중에는 '프랑스혁명기념일 축제'가 겹쳤다. 7월 14일은 프랑스 최대의 국경일이다. 13일과 14일의 축제 기간 모든 거리가 뜨거운 축제장으로 변해 콘서트와 퍼레이드, 불꽃놀이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단지 전통에만, 예술적 분위기에만, 볼거리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세한 요소가 모여 빛을 발하는 다채로운 조합이 돋보이는 게 바로 파리가 지닌 강점인 것 같다. 에펠탑 위에 터지는 불꽃놀이를 보며 우리도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속기와 기록 분야의 불꽃놀이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인터스테노 집행부들과 함께 기념촬영 찰칵!!